

신혼부부 출산 전 종잣돈부터 만들어라

50% 이상 저축·1억 만들기 프로젝트 등 구체적 목표 설정 통장 쪼개기 등 목적 따라 분산 투자하고 공동 관리 바람직

인생에서 결혼은 중대 전환점이다. 각자의 삶을 살아오던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삶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금 관리에서도 중대 전환을 맞게 된다. 신혼부부인 만큼 '자기'는 물론이고, 집안 어른들도 신경써야 한다. 자칫 집안 간 다툼으로 번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의 삶과 패턴이 다르다보니 자금 관리에서도 '나는 나, 너는 나'식의 편리를 꾀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하다. 그렇지만 금융전문가들은 '딴따라'보다는 '공유 경제'가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신혼 맞벌이 부부는 서로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해야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단정했다.

결혼시즌을 맞아 광주은행이 맞벌이 신혼부부들에게 권하는 통장관리 전략을 소개한다.

◇첫걸음은 종잣돈 만들기= 종잣돈은 자산을 만들기 위한 씨앗이 되는 돈이다. 앞으로 지출하게 될 자녀출산 및 양육 자금, 전세·주택구입 자금, 노후 자금, 더 나아가 투자와 운용을 하기 위한 자금까지 종잣돈이 있어야 가능하다. 세계적인 투자 귀재 웨렌버핏도 지금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는 종잣돈이 모태가 됐다.

특히, 가장 큰 목돈이 드는 게 주택 마련인데 최근 대출요건이 강화되면서 종잣돈의 중요성은 더 높아졌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도직입적으로 신혼부부 수입의 50% 이상을 저축하는 것을 추천한다. 신혼부부는 아직 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때이고 이후 자녀육아비·교육비 등으로 지출이 많아지면 자금을 모으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신혼부부 종잣돈 모으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입대비 저축 비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축 비율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에 따라 종잣돈을 얼마나 빨리 마련할 수 있을 지가 결정되고, 그 종잣돈으로 인해 앞으로 인생의 자산운용 흐름이 결정된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금액을 설정해 힘들 때가 아니라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정하고, 저축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저축 만기로 목표

달성을 하면서 돈 모으는 흥미를 느끼고, 이를 반복해 이루다보면 의미있는 규모의 종잣돈을 손에 쥘 수 있다.

◇통장은 따로, 관리는 함께= 부부의 수입을 계획적 소비로 이어지게 하려면 통장을 분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부 생활에 맞춰 급여통장·생활비통장·비상금통장·재테크통장 등으로 나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장은 나누지만 통장 관리는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신혼부부들은 모임회비처럼 생활비정도만 견고 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보다 계획성 있는 자금관리를 하려면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다. 부부간 재무상태를 공유하면서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성공적인 신혼부부 재테크의 지름길이다.

◇목적따라 분산투자하라= 저축이나 투자의 목적은 기간이나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그렇지만 인생 주기에 따라 단기 목적으로는 목돈 마련과 대출금 상환 등을, 중기 목적으로는 자동차 구입과 자녀교육 자금 등을, 장기 목적으로는 주택 마련과 자녀 결혼, 노후 준비 자금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적금·펀드·저축성보험 등을 통해 분산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금액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

해 맞춤형 상품을 찾는다면 주기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금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단기나 중기 목적 자금은 적금이나 펀드를 통해 마련할 수 있고, 장기 목적 자금은 저축성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광주은행 상품 중 목돈 마련의 가장 좋은 적금은 '해피라이프 여heng스케치적금 II'이다. 스마트폰으로 월 100만원을 3년제에 가입할 경우 우대금리 포함 최고 연 2.7%로 만기해지할 경우 세후 수령금액은 3726만7740원이 된다.

광주은행 디지털전략부 백승기 과장은 "목적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가장 안정적인 적금 가입을 하는 게 좋다"고 권장했다.

/*박정숙 기자 jwpark@kwangju.co.kr



여전한 가상통화 투자 사기...작년 유사수신 신고 25% ↑

지난해 신고·상담 889건 1인당 피해금액 6910만원 금융감독원 투자자 주의 당부

유명 가상통화 투자를 빚자한 유사수신 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데다, 금융업으로 위장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에 대한 신고·상담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889건으로 전년(712건)보다 177건(2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사

례는 총 139건으로, 전년 153건보다는 9.2% 줄었다.

신고·상담 건수는 증가했으나 수사 의뢰가 곤란한 단순 제보나 동일 혐의업체에 대한 중복 신고가 많아 수사 의뢰 건수가 줄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한 유사수신 사례 139건의 사업 유형은 '합법적인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이 65건(4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상통화 투자를 빚자' (44건·31.7%)가 뒤를 이었다.

금융업·금융상품을 가장 및 가상통화 관련 유형에 대한 수사 의뢰는 각각 32.7%, 12.5% 증가한 반면, 일반인에게 비교적 생소하거나 경기 동향에 좌우되는 부동산 개발 등 기타 유형의 유사수신 업체는 65건에서 30건으로 절반(53.9%) 가까이 줄었다.

이들 유사수신 업체는 수익모델이나 실제 영업활동이 없음에도, 허위 사업설명서나 광고 등을 통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처럼 위장해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트코인 등의 유명 가상통화의 채굴(mining), 국내 자체 가상통화 개발 및 상장(ICO), 가상통화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최신 유행 업종 및 첨단 금융기법을 빚자하거나 유명 연예인·국내외 정관계 유력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은 물론, 회사의 영업이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매일 새벽에 모집책을 출근시키기도 했다.

특히, 유사수신 업체들은 이렇게 투자자들로부터 받아낸 자금을 사업에 쓰지 않고

투자금 돌려막기나 명목 구매, 유희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재산은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수도권(102곳·73.4%)과 광역시(21곳·15.1%)에 몰려 있었으며, 수사 의뢰된 사건 중 120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피해자 성별이 남성인 경우는 53건(44.2%), 여성인 경우는 67건(55.8%)이었다.

1인당 평균 피해 금액은 6910만원으로, 남성의 피해액(9650만원)이 여성(4740만원)의 두배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40.5%)와 30대(36.4%)가 전체의 76.9%를 차지했다. 남성은 장년층, 여성은 젊은 층의 피해 신고 비중이 컸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車보험 가격에 예민해진 소비자

인터넷·특약 가입 늘어
보험사 수입보험료 줄어

세, CM 채널은 44.0세로 확인한 차이를 보였다.

CM 채널 가입률은 20대 이하와 30대에서 각각 41.4%, 45.8%에 달했지만 60대는 16.4%, 70대 이상에선 13.0%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CM 채널 가입률이 31.0%로 광역시(25.5%), 그 외 지방(22.4%)보다 높았다.

할인형 상품 가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자동차 보험 가입대수는 2249만대로 전년보다 2.9% 늘어난 반면 수입보험료는 15조8000억원으로 1.4% 줄었다.

자동차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약 68만원 수준으로 전년의 70만원보다 2.9% 감소했다.

이는 보험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데다 정보 접근성이 개선됨에 따라 전보다 쉽게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작년 오프라인보다 가격이 저렴한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보험가입(CM 채널) 대수는 439만여대로 전년보다 14.1% 늘었다.

반면 설계사나 대리점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보험가입 대수는 787만여대로 2.5% 줄었다.

특히 CM 채널 가입률은 20~30대 젊은 층과 수도권 거주자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채널별 평균 가입연령을 보면 오프라인은 50.5세, 전화 상담 통한 가입(TM 채널)은 50.2

주행거리(마일리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상품 가입률(개인용 기준)은 전년보다 9.2%포인트 높은 56.3%로 집계됐다.

자동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블랙박스 특약상품 가입률도 전년보다 7.2%포인트 상승한 58.3%다.

이와 함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외산차는 작년 말 기준 약 179만대로 전년보다 15.0%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국산차 증가율 1.8%에 비해 8.3배 빠른 속도다.

외산차의 차량가액(차값)을 보면 3천만원 미만 비율이 53.7%로 전년의 51.6%에 비해 높아졌다. 국산차의 3천만원 미만 차량 비율은 93.3%로 전년보다 0.5%포인트 낮아진 것과 대조된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보험 시장이 감소 추세에 직면한 만큼 보험사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우량고객의 지속적인 확보가 보험회사의 경쟁력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디스플레이 모듈 국제 품목분류 기준 확정

고세율 적용 분쟁 줄어들 듯

2022년부터 디스플레이 모듈이 전 세계 세관 당국의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받아 우리 기업들이 일부 국가에서 고세율을 적용받는 데 따른 무역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 기준이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과 디스플레이 업계는 2013년부터 우리 주력 수출 물품인 디스플레이 모듈이 상대국가와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통일된 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명확한 국제 기준이 없어 나라마다 'TV 부

품'이나 '휴대폰 부분품', '액정디바이스' 등 각기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이 디스플레이 모듈을 수출할 때 상대국으로부터 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10년 폴란드 관세 당국이 우리 기업이 수출한 디스플레이 모듈을 관세 5%인 TV 부분품으로 분류해 500억원에 이르는 관세를 추정하려 했고, 이에 관세청이 분쟁 해결에 나서 관세가 0%인 '액정표시장치(LCD) 모듈'로 최종 결정받기도 했다. 불명확한 품목분류 탓에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해당 업체는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은 'HS 제8524호'다.

/*연합뉴스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학산운명감정원

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궁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중매 (경력33년)
원장 전홍석 ☎062-225-2157

라발레 학원

서구 내방로235 삼화빌딩 2층
고급 댄스 플로어 시설에서의 수준별 정원제로
세계적인 커리큘럼으로 클래스가 이루어집니다.
유아발레,초등발레,중.고등발레,성인발레 전문학원
☎062)381-0065

크린토피아 광주봉선제일공예점

남구 봉선동 516-18
와이셔츠세탁, 이불세탁소,
드라이클리닝,운동화세탁소
☎062)676-7705

백세 쭈꾸미식당

전남 나주시 이창동 158-16번지
쭈꾸미, 삼겹살, 갈비, 오리로스
☎061)332-7313, 010-8224-7313

진주공방

동구 자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죽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010-3906-1718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씨브웨이 광주충장로점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원모집 합니다.
08:00~23:00
☎062)236-1121

무크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인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고흥나루터

동구 자산동 705-9 (법원빌딩)
하모(참정어), 샤브샤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폼비올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그집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실험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신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꼬아전통마사지 전문점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25, 2층
(남평5일시장앞 대로변 새건물2층)
최신시설완비 남.여 마사지 전문점
친절 신용 본위
☎010-9277-2011, 010-4624-8457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기담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